

배수빈 “연극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



“연극은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어 매너리즘을 깨고 연극 출연은 제 안의 작은 저항이거든요. 정체돼 있지 않기 위한 저와의 싸움이지.”

텔런트 배수빈(40·사진)이 연극 배우로 거듭나고 있다. 라이선스 연극 ‘카포네 트릴로지’(연출 김태형·9월18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이전의 이미지와는 다른 연기로 주목받고 있다.

‘카포네 트릴로지’는 미국 시카고 렉싱턴 호텔의 비좁은 방 661호에서 1923·1934·1943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 세 가지 사건을 3편의 오페라로 그린다. 각 편은 러닝타임이 60분이 넘는 한 공연이다. 배우들은 한꺼번에 세 작품에 출연하는 셈이다. 체력 소비도 상당한데, 캐릭터 역시 만만치 않다.

배수빈은 인기 절정의 쇼걸 ‘블라 킨’의 결혼식 전날 그녀를 둘러싸고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끝없는 살인을 다룬 코미디 ‘로키’에서 어수룩한 회계사와 형사 등 1

인 다역을 연기한다.

조작의 2인자인 ‘닉 니티’가 사랑하는 아내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파국을 맞이하는 서스펜스 ‘무시퍼’에서는 닉 니티,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을 앗아간 상사 ‘두스’에게 화려한 복수를 계획하는 경찰 빈디치의 이야기를 그린 하드보일드 ‘빈디치’에서는 두스를 맡았다.

배수빈이 ‘로키’ 같은 코미디물에 출연하는 건 드문 일이다. 단정한 외모로 빈틈 없는 캐릭터를 연기한 그가 어리바리한 모습을 보인다. 경쾌한 춤도 선보인다.

“저 역시 무대 위에서 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로키’ 때문에 여개의 짐을 내려 놓고 편안하게 즐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초반에는 1인 다역을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원래 동시에 여러 작품을 못 해요. 한 캐릭터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로키’를 하면서 한번에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적응하고 있죠.”

라이선스 연극 ‘카포네 트릴로지’서 1인 다역 TV 귀족풍 이미지 벗고 어리바리 코미디 도전 “40대 되니 마음 편해져… 노련한 배우 되고파”

“‘무시퍼’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내티는 배수빈이 그간 연기해온 캐릭터의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다른 것(TV·영화의 편집이나 무대 효과)에 기대지 않고 연기 자체만으로 70분을 끌고가야 하니 긴장감이 상당하더라”고 털어놓았다.

“빈디치”의 두스는 배수빈이 지금껏 맡았던 캐릭터 중 가장 악랄하다. 경찰 간부지만, 각종 부정을 저지르고 있고 은밀한 성적인 취미도 있다. “비열한 캐릭터인데 나도 모르는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요. 하하.”

“카포네 트릴로지”의 또 다른 특징은 무대다. 공연장은 무대와 객석이 정확히 나뉜 기존 프로시니엄(액자 형식) 구조가 아니다. 관객이 마주 보고 앉을 수 있도록 객석이 50석씩 배치돼 있고 그 가운데 무대가 있다. 배우들이 뒷모습까지 연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맨 앞좌석에 앉아 있는 관객들과 몸이 부딪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소극장에서 연기를 해봤지만 이처럼 관객들과 가까운 건 처음이라 초반에 어려웠어요. 하지만 관객들의 반응과 에너지가 바로 전달되니 신나게 몰입할 수 있더라고요. 관객들이 공연의 일부가 되는 연극이죠”라며 싱글벙글이다.

배수빈은 2002년 중국 CCTV ‘기억의 증명’으로 데뷔했다. 어느덧 15년 차. 2007년 ‘다리롱 모던걸’을 시작으로 연극 출연도 꾸준히 병행해왔다. TV 드라마를 통해 자상한 실장님 또는 중후한 귀족 풍의 이미지를 주로 선보인 그는 무대에서는 숨겨온 얼굴을 꺼내보였다.

“연극은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부딪혀 나가려고 하죠. 제가 버퍼링이 긴 편이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라는 겸손이다.

하지만 1000만 관객이 넘는 동명의 영화가 바탕으로 왕과 광대 1인2역을 연기한 ‘광해, 왕이 된 남자’, 정체성과 자긍심을 찾아가는 성소수자를 연기한 ‘프라이드’ 등에서 그는 새로운 캐릭터의 옷을 완벽하게 입었다.

“컴퓨터 효과가 다양해지고 스마트폰 등 볼거리가 많아지면서 배우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해 본 ‘카포네 트릴로지’ 국내 초연은 그 과정에서 ‘컬처 쇼크’였죠.”

배수빈은 2013년 결혼, 이듬해 아들을 얻었다. 올해 만으로 마흔살. 최근 17세짜리 장래인 아들을 둔 ‘킬 미 누우’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와 위험한 자신의 일을 두고 고민하는 ‘무시퍼’의 가장 역에 진심이 묻어나는 이유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연기하기가 편해졌다고 할까요. 결혼 이후 이런 역들을 연기할 때 굳이 억지로 끌어올릴 필요가 없었죠. 정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단이 여러개 생겼거든요.”

남자 배우의 전성기는 40대. 배수빈 역시 이 나이대에 접어들어 “마음이 편해졌다”고 여유감을 보였다. “열정과 노력, 노련함이 잘 공존할 수 있는 나이대라고 생각해요. 40대를 잘 보내서 50, 60대는 좀 더 노련해진 배우가 되고 싶어요.”

/김민근 기자

도립미술관 ‘전미회전’

미술은 가시적인 세계를 통해 보이는 것들 외에 불가시적인 영혼의 단면까지 담아내는 작업이다. 그러하기에 각기의 미술작품에는 쉬이 범접할 수 없는 작가만의 유일한 세계관이 깃들어 있다.

작가들은 이러한 자신만의 세계를 다듬고 가꾸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수반해왔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변화와 실험을 모색하고 독창적인 예술 발전을 위해 창조를 거듭해온 것이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각자의 감각을 공존하게 하는 변화적 창작의 동기를 서로에게 부여하고, 전북미술의 업적과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석원) 서울관에서는 17일부터 22일까지 ‘전미회전’이 열린다.

올해로 35화계를 맞는 전미회는 순수미술을 지향하는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미회 회장 김철수를 비롯하여 박남재, 이승백, 박종남, 원창희, 임동주 작가 등 64명의 작가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박남재 작가는 대담한 원색의 붓 터치로 강렬한 자연의 리얼리티를 포착하여 독창적인 색감으로 자유분방하게 표현한다.

이승백 작가는 지리산, 부산 내변산, 내장산, 강천산, 모악산, 대둔산 등 다양한 전북 산들의 경이로운 모습을 캔버스에 담아낸다. 높고 아름다운 산을 모티브로 하여 골짜기 깊은 곳, 흐르는 바람과 공기, 빛과 시간의 기운 등을 붓 끝으로 묘사해 낸다.

또한 김미로는 색채 감각이 돋보이는 박종남 작가의 작품은 색의 발현과 빛의 깊이를 자유로운 터치와 선들로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자연에서 예술적 미의식을 끌어내며, 삶의 풍파를 헤치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원창희 작가는 자연의 내적 신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건강한 낭만을 향구 풍경이나 야산의 한적한 풍경으로 표현한다. 작품에는 대담한 구도와 붓질, 남도의 향토적 서정성이 묻어난다.

또 다양한 형태와 색채를 지닌 산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데 심취했던 임동주 작가는 자연을 소재로 한 풍경화를 주로 작업한다. 햇살이 따사로운 시골 풍경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한다.

/정해은 기자

도립국악원, 영호남 무용단 교류공연 선보여

지역과 장르가 다른 3개 단체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전라북도립국악원은 18일 오후7시30분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함께편, 나눔편, 문화편〉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무용단 교류공연의 일환으로 무용단체간의 문화적 연대감을 도모하고자 열린다. 무대에는 ‘전북도립국악원무용단(단장 김수현)의 한국무용 매창·꽃으로 피다, 광주광역시립발레단(예술감독 신순주)의 발레 카르멘, 대구시립무용단(예술감독 홍승업)의 현대무용 모자이크’가 각각 올라간다.

첫 번째 무대는 광주시립발레단의 〈카르멘〉으로 장식한다. 이는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집사와 도발적인 사랑이야기를 그린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작품을 발레화한 것으로 롤랑 뽀피가 안무를 맡았다. 발레 카르멘은 화려하면서도 격정적인 안무로 인해 무용계에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어지는 대구시립무용단의 현대무용 〈모자이크〉는 홍승업 안무자가 4개의 소품을

모아서 만든 레퍼토리 작품이다. 모자이크는 이외수의 1992년 작 소설 벽오금학도를 모티브로 한 ‘벽오금학’ 중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행렬의 음악에 맞춘 작품 #1. 행렬, 2015년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작품 ‘코끼리를 보았다’ 중에서 사갈의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회화적으로 표현한 작품 #2.사갈, 냇다, 호랑이 킧등을 견어했다. 2008년 발표되었던 작품 #3.꽃, 2008년 발표되었던 작품 #4. 난간 등 총 4개의 소품으로 구성되어 자유롭고 개성적인 표현력을 강조함으로써 현대무용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지막 공연은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이 한국무용(매창·꽃으로 피다)로 장식한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예매는 홈페이지(금강방송 www.kan.tv)에서 하면 된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당일 현장을 방문 오후6시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도리화 귀경가세’ 광주예술난장 굿관 학술마당서 사례 발표

고창읍성 내에서 펼쳐지는 한옥지원활용 아간상설공연 ‘버라이어티 감성농악 - 도리화 귀경가세’가 광주예술난장 굿관 학술마당에서 전통농악 기획공연 사례로 발표된다.

주관 단체인 고창농악보존회(회장 이명훈)에 따르면 ‘도리화 귀경가세’는 오는 20일 광주광역시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에서 펼쳐지는 광주예술난장 굿관 학술마당에서 전통농악을 토대로 한 창작 사례로 소개된다.

사례 발표는 ‘도리화 귀경가세’의 기획과 고창농악의 전통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며 남기성 연출이 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 는 이용식 전남대 국악과 교수와 송기태 도서문화연구원 교수가 나선다.

이번 학술마당은 전통공연문화와 축제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통연희에 기반을 둔 공연문화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가능성을 논의하며, 축제로서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옥지원활용 아간상설공연으로 진행되는 ‘버라이어티 감성농악 - 도리화 귀경가세’는 공연을 거점으로 고창군청과 지역 주민, 소상공인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이끌어낸 민간협력 문화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고창의 ‘도리화 귀경가세’를 필두로 주민주도형으로 문화마을이 조성되고 있는 양산시 문화특화지역, 수원 칠보산마을의 강강술래, 목포세계마당극센터의 등의 사례가 소개된다.

한편, ‘도리화 귀경가세’는 농악을 중심으로 기악과 연극, 각종 볼거리를 풍성하게 담은 ‘버라이어티 감성농악’으로 고창 출신의 판소리 이문기 신재효와 그의 제자이자 조선 최초의 여성 판소리꾼인 진채선의 그리움과 예술혼을 다룬 공연이다.

전북도립미술관, 전북도문화관광재단,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오늘부터 예매 시스템 가동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는 17일부터 티켓 예매 시스템을 가동하고 조기예매 이벤트를 실시한다.

‘올리 버드’ 이벤트 기간(17일 오후2시~31일 오후5시)동안 JB카드 또는 광주은행 카드로 결제 하는 티켓 예매자는 4개 공연에 한해 50%의 과적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공연은 15개국 아티스트가 한 무대에 올라 글로벌 연합 오케스트라로 꾸미는 개막공연(Sori from the world)을 비롯해 소통과 교감이 빛어내는 국경을 초월한 감동의 하모니(한-폴 프로젝트 쇼팽&아리랑),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보컬을 만날 수 있는 더블빌(조순자 명인(가곡)-어르주 알리예바 앙상블), 음향·영상·빛과 사운드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식의 실험적 공연(원일과 이치승의 사운드 콜라주 퍼포먼스, 글 폼-소리 유형 사냥꾼)이다.

이외에도 유료공연에 대한 다양한 할인 혜택이 마련된다.

JB카드·광주은행 카드 결제시 20%, 초·중·고등학생은 20%, 20명이상 단체관람객은 30%, 문화누리카드와 65세 이상의 성인과 국가 유공자 및 장애우는 50%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계소리축제 전체 유료공연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예매 할 수 있다. 기타 프로그램 안내와 자세한 일정 및 예매는 소리축제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063)114 또는 1577-4052.

/정해은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8월 17일)

▷쥐띠
46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발생할 수 있다.
60년생: 금전적 지출이 많을 때이니 금전관리에 신경써라.
72년생: 천운이 따르니 하고자 하는 일에도 좋은 결실을 맺는 운이다.
84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미리 방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소띠
49년생: 뒷심을 잃지 말고 마무리를 잘해라.
61년생: 자기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말라.
73년생: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금전과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라.
85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좋은 기운이 가택으로 향하니 집안에 화기가 돌면서 경사가 따르는 운이다.
62년생: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74년생: 말로 인한 화를 주의하라.
86년생: 먼저 배고고 덕을 쌓아라.

▷토끼띠
51년생: 자신의 예상보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길운.
63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나 결실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75년생: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는 것이 상책이다.
87년생: 급하게 서두르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
64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성기신 일들이 발생하니 참견은 금물.
76년생: 위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8년생: 의욕이 앞서는 운이나 위 사람에게 실수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뱀띠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시간을 활용하라.
65년생: 선심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77년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이나 혼자서 묵묵히 해결해야 하는 운이다.
89년생: 눈앞의 결실을 비리고 행동하지 말고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말띠
54년생: 금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미리 대비하라.
66년생: 연장자의 귀인이 나타나는 운이다.
78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0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는 때다.

▷양띠
55년생: 대인관계,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막혀 있으니 조심하라.
67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은 운.
79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91년생: 타인과 대립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해결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원숭이띠
56년생: 문서운이 들어왔다.
68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80년생: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일이 성사되니 동행하면 길하리라.
92년생: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니 협동을 요하는 일은 미루는 것이 좋겠다.

▷닭띠
57년생: 모든 일은 내부에서 일어나니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내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6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81년생: 시함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는 운.
93년생: 원행은 불리하다.

▷개띠
46년생: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58년생: 경거망동하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70년생: 동기간과 일을 도모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 운.
82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라.
59년생: 기운이 왕성하지 못하니 내실을 다져라.
71년생: 금전운이 불리하다.
83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얌전히 기다려가야 풀리는 운이다.